

오라클, “M2M 기반 연동화 플랫폼 설계 및 구축” 보고서 발표

비즈니스 기회창출과 인텔리전스 확장 위해 M2M 데이터 이용 확대



오라클은 “연동화된 세계(Connected World)를 위한 M2M(사물기반 통신) 플랫폼 설계 및 구축” 조사 결과를 발표, M2M 프로젝트 속에 잠재되어 있는 성장 요인과 이러한 변화가 솔루션 요구사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혔다. 마크 바튼 오라클 아시아태평양 ISV 및 OEM 사업부 부사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오라클이 1월 5일(현지시간) ‘연동화된 세계(Connected World)를 위한 M2M 플랫폼 설계 및 구축’ 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설명 중 하나다.

이 보고서는 오라클과 M2M 분석 전문 업체인 비참 리서치(Beecham Research)가 수행한 조사로 M2M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솔루션 요구사항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제공한다. 북미, 유럽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업 및 소비자 고객, 주요 제품 OEM 업체, 시스템 통합 업체,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 및 M2M 플랫폼 제공 업체들이 조사대상이었다.

마크 바튼 부사장은 “지난 7년 간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M2M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많은 변화를 목격했다”라며 M2M이 바꾸는 세계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부서 및 비즈니스 부문별 전반에 걸쳐 보다는 많은 정보가 통합됨에 따라 M2M 사업에서 클라우드 활용과 데

이터 보안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M2M 프로젝트 뒤에 숨겨진 성장요인이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 대상 75%는 새로운 서비스와 수익 창출에 대한 기대가 M2M 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M2M 데이터와 함께 콤플렉스 이벤트 처리(Complex Event Processing, CEP) 기술을 사용하면 사전에 정의 해놓은 결정 요소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실시간 인텔리전스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연구 대상 65%가 B2B와 특히 B2B2C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 CEP가 제공할 기술에 대한 높은 기회 가치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 소스가 최종 사용 환경 정의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사람의 개입 없이도 작동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농업산업 관리에서 날씨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관개를 실행하거나, 보안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시간 인간 행동 프로파일링과 얼굴 인식 경고 기능 등을 탑재하는 것이다.

M2M 환경을 위해 중요한 것으로 통합된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즉, M2M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주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플랫폼을 만드는 게 오라클의 몫이다.



2012.11.05, BLOTER.NET
아시아태평양 ISV 및 OEM 사업부,
마크바튼 부사장



"M2M, 이제 이젠이 아니라 주연에서 실체로 활약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기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해 의사 결정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크 바튼 오라클 아시아태평양사업부 부사장은 M2M이 발전하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 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렴한 모바일 네트워크 안을 보급과 수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M2M 플랫폼을 손쉬운 거리가 높아진 덕에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늘어났다고도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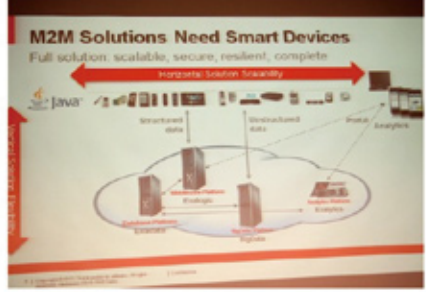
M2M을 기기들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 정보를 주고 받는 과정을 일컫는다. M2M 환경에서 움직이는 기기들은 서로 통신을 통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스스로 판단해 움직인다. 사람의 개입 없이 일어나는 순수한 기기들 간 의사소통이라고 할까.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M2M 활용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화물운송부터 시작해서 말까지 M2M을 우리 삶에 다량하게 쓰이고 있다. 실시간 교통상황을 파악해 길 안내를 도와주는 내비게이션도 M2M 활용사례의 일부분이다. 할당량이나 기기가 갖춰진 차량의 기기도 일례로 M2M이다. 모바일 기기는 우리가 접한 할당량 정보를 통해 보내 회차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그 뿐만아니라 주연한 식별이 어려운 수고 있는지 추적할 수 있는 것도 M2M이다. 기기의 거리가 서로 소통하거나 나가 무용한 액세서리도 도우려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100년전만 해도 단순 어찌에 그친 기술이었지만, 이런 현상화 새 개념은 가치를 만들어 주고 있다.



"스마트 기기가 등장하면서 M2M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이 단순히 M2M에 관심을 보이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를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켜 수익을 내려고 합니다. 이제 오라클은 연동화된 M2M 플랫폼을 통해 기업들이 기기 간 데이터를 쉽게 수집하고 관리하면서 표시해 분석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합니다. 데이터 보안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안전성과 보안성도 확보시켜주고 합니다."

마크 부사장은 M2M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회사 스스로 이를 어떻게 관리하든 중요자를 고민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자동차를 예로 들면서, M2M을 적용하게 할려면 경우 차질이 끊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지만 같은 경우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M2M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기에 담긴 데이터 값을 빼앗겨 수집하면서 연결 거로부터 데이터를 저장 관리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설명했다.



현실무연의 M2M 플랫폼은 각 단말 기기에 적용된 M2M 솔루션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한 뒤, 차서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한다. 이때 단말서 수집한 데이터는 오라클 데이터 센터에 보낸다. 무엇보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쉬운 플랫폼 같지만, 철저 구축하려면 단말기 장



2012.11.06, ZDNet Korea
아시아태평양 ISV 및 OEM 사업부,
마크바튼 부사장



"사물통신(M2M)에 대한 기업들의 접근법이 달라졌습니다. 효율화를 위해 도입하던 M2M은 이제 기업이 새로운 부가치 창출수단으로 진화했습니다."

마크 바튼 오라클 아시아태평양 ISV 및 OEM 사업부 부사장은 최근 거리가 짧아 이같이 말했다. 오라클이 5일(현지시간) '연동화된 세계(Connected World)를 위한 M2M 플랫폼 설계 및 구축' 전시 결과 보고서에 대한 설명 중 하나다.

이 보고서는 오라클과 M2M 분야 전문 업체인 피셔 리서치(Fischer Research)가 수행한 조사로 M2M 기가 서로 간에 엄청난 속도로 오사상에 대한 다양한 열거를 제공한다. 특히, 유럽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업 및 소비자 고과, 주요 제품 OEM 업체, 시스템 통합 업체,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 및 M2M 플랫폼 제공 업체들이 조사대상이었다.

마크 바튼 부사장은 "지난 7년 간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M2M 사업을 들여가고 집행하면서, 많은 변화를 목격했다"면서 M2M이 바꾸는 세계에 대해 설명했다.



"다양한 산업, 업종이 M2M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M2M으로 각 기기는 우주수를 갖게 돼 서로 소통하고, 그 데이터는 중앙의 통합된 시스템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텔레메트리를 예로 들면, 4년전 서울에서 휴대전화로, 항공기 제어를 원격으로 하는 시연은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어를 보여준 것만이지만, 지금은 도시의 디어가 정상화해 기기가 간헐에 적용해 새 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에너지 분야의 M2M 테슬라에이전트 소개했다. 실시간으로 수를 관리하는 스마트그리드가 대표적이다. 기기를 실시간으로 연결 집행함으로써 데이터를 주고 받음으로써 에너지의 비용을 절감하여 환경 오염을 줄여 도움을 주고 있다.

물류 분야에 적용한 M2M 사례도 소개했다. 물류 컨테이너에 센서를 넣고, 온도, 빛, 소진, 질, 방사능 등을 측정하게 하는 것이다. 센서는 안전성과 통신하면서 데이터를 전송한다. 물론 컨테이너는 본질과 외부와의 정합에 따른 파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송시 움직임을 통제해 준다. 만약 약이 걸리면 이런 방식으로 급히 집입을 알려주 수 있다.

"오라클의 최후집 관리도 최상 소프트웨어는 지체된 위치추적이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 집입이 일어났는지 파악할 수 있지요. M2M의 강점은 꼭 필요한 구역에만 한정하고, 나머지는 M2M이 다 해결하는 것에 있습니다. 물류분야에 활용되는 컨테이너 수를 실시간으로 집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기업들이 M2M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에 눈을 뜨고 있다고 말했다. 오라클 조사를 따르면, M2M 관련 사업은 수십억달러에 육박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 대상 75%는 새로운 서비스의 수적 창출에 대한 기대가 M2M 소프트웨어를 활용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용자들이 M2M 데이터를 원격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와 함께 대한 피드백 제공 및 특정 고과 필요 오사상에 제를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달자 85%는 원격 감시용 스마트미디어 분야나 텔레메트리 기반 통신 및 원격 진단 시스템 분야에 두 번째 데이터를 생성하는 만큼 성능을 향상 중에 플랫폼을 위해 설계되는 데이터를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관리 방법을 고민한다고 밝혔다.

"그뿐만아니라 설계하고 하면 운영 플랫폼, 비종업량 유지의 부담감, 종류 및 공급망 플랫폼 위에 도입했습니다. 지금은 M2M에서 부가치를 새로 창출할 수 있게 됐어요. 3D프린팅, 80% 오류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피셔리에서는 차전자계 0.5를 설계하고, 데이터센터의 차전자계 계측 통신하는 SW를 설계했습니다. 이 차전자계는 본사서 지속적으로 채고 데이터를 전송하고 어떤 용도가 필요는지 파악하도록 합니다. 도로 갈때 차전자계 기가 서로 리 데이터센터로 모든 정보를 새 가치를 창출하고, 날씨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는 새로운 판매방식 가능해졌습니다."

이밖에 플랫폼이 실용된 차전자계 M2M 제는 또 있다. 현재 도로에서 2차 주요데이터서 운영중인 프로젝트로, 차전자계 상정된 차전자계 내장시켜 차전자계 기가이 차를 새 기능적인 정보로 바탕으로 실시간 제어를 하도록 한 것이다. 구대차의 성능, 내구, 제구 등에 따라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의미이다.

M2M 데이터와 함께 클라우드 컴퓨팅(CCP) 기술은 사용자들 사면의 결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대량